

옛날과 오늘날의 사랑을 이어주는 절

사이간덴지 절 왼편 안쪽에는 ‘사료가바시’라고 불리는 용암길이 있습니다. ‘샤료(写経)’란 불교 경전의 한 구절을 옮겨 적는 것입니다. 근대적인 도로가 정비되기 전에는 사료가바시가 분화구에 오르기 위한 주된 길이었습니다. 승려와 신관만이 산꼭대기까지 오르는 것이 허용되었습니다. 일반인들은 150m 정도까지만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. ‘온다케산마이리’라고 불리는 등산로가 있으며, 혼인 전 관습으로 많은 젊은 커플이 이곳을 찾아 참배를 했습니다.

온다케산마이리를 하는 사람들은 봄과 가을, 춘분과 추분 즈음에 이 절을 방문했습니다. 1860년대 후반까지 절 서쪽 탁 트인 곳에 모여 살고 있던 야마부시(산악 수행자)들이 참배자들의 등산을 인도했습니다. 1871년 메이지 정부의 명령으로 야마부시들이 퇴거되고 사이간덴지 절이 폐사된 후에도 참배자의 발길은 끊이지 않았습니다. 다이쇼 시대(1912-1926) 기록에는 붉은 기모노를 입은 여성들이 긴 줄을 지어 산을 오르는 모습이, 멀리서 보니 붉은 석산화처럼 보였다고 적혀있습니다.

사이간덴지 절은 예로부터 인연 맺기(결혼과 연애의 인연)에 효험이 있다고 여겨졌습니다. 이 효험이 현대적으로 해석되어 사이간덴지 절 오쿠노인은 2011년에 공식적인 ‘연인의 성지’(프리포즈에 딱 좋은 로맨틱한 장소라는 의미) 인정을 받았습니다. 심볼인 소 좌상은 2023년 3월에 설치되었습니다. 참배할 때는 이 소를 쓰다듬으면서 소원을 빌어보세요.